

재혼풍속이 달라진다

과부재가 금지 전통 파괴, '재혼의 문' 열렸다

처녀사절.
이혼경력 환영.
아이 딸린 여자 환영,
특히 딸 아이 우대.

이것은 재혼을 위해 친구들에게 중매를 부탁하는 정 모씨(52세, 사업)가 생각하는 '재혼아내의 조건'이다.

갈등 요소 많은 '처녀장가' 기피

재혼 아내로 이혼 경력자를 환영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처녀들은 나이들고 이혼 경험이 있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둘째 사별한 여자는 전남편을 미화해 가슴 속에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어서 재혼생활을 행복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경력자는 이혼까지 가야 했던 부정적인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리움이나 핑크 빛 환상이 없이 결혼생활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혼 아내의 딸 아이를 환영하는 것은 50대인 자신의 나이를 생각할 때 새로 아이를 낳기는 문제가 있을 듯하고 입양해서 남의 아이도 기르는 세상에 이왕이면 아내의 아이면 더없이 좋다는 생각에서 나온 뜻이다. 두아이를 이혼한 아내에게 보낸 그는 아이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주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여성에게도 재혼의 문이 열린다

남자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의 젊은 여자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자는 아이가 달려 있지 않을수록 재혼조건에서 유리해진다고 알려져 있는 통념에 미루어볼 때 정 씨와 같은 재혼관은 상당히 새롭



5월 2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재혼, 그 또 다른 시작'을 주제로 여성백인회관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다.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상당부분 벗어나 있다.

남편에게 의존해 세상을 살아온 여자는 남편의 죽음으로 '엄마의 바다'를 발견하고 자기 앞가림이 두려워 통곡하고 운다지만 남자가 40대에 상처하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말이 있다. 사회적인 성취를 어느 정도 이루었을 연령대에 여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이다.

남자가 사별하면 주변에서부터 재혼을 권유한다. '보기에 딱하다'는 것이 재혼을 서둘러 권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권모 씨(58세, 회사원)는 아내가 암으로 사망하면서 적적하지만 재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독신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다. 사별한 지 석달도 지나지 않아서 주위에서는 재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평생을 함께 살던 아내의 빈자리가 아직도 여색한 때이지만 주위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가 아내자리를 빈자리로 유지한다는 것을 본인보다 더 어색해했다. 반대로 남편을 잃은 여자가 반년도 안되어서

재혼이야기를 듣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건 상당히 '욕된' 일에 해당할 것이다. 남편의 친족들은 과부가 된 여자가 재혼해서 재산을 빼나갈 것에 대비하기 바쁘고 자식들도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못하다. 어머니의 홀로 됨은 익숙한 일인 것이다.

전남편 아이 양육도 늘어

남자의 특권처럼 여겨졌고 아직도 상당히 불균형한 상태이긴 하지만 재혼의 문이 여성에게도 넓혀지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결혼문화가 상당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처녀를 사절하고 이혼경력자를 환영하는 50대 남성과 같이 '명분 대신 실리'를 택하는 남성의 등장도 그같은 변화의 한 부분일 것이다.

과부재가금지의 전통이 깨지면서 여성의 재혼이 일반화되어가는 조짐은 통계상으로도 나타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지난 한해동안의 재혼상

재혼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 형태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통념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유형이 급속히 늘고 있다. 여성 초혼-남성 재혼인 전통적인 유형이 44.6%로 가장 많다. 그러나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가 39.6%, 여성재혼-남성 초혼도 15.8%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전 남편의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20.2%가 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처의 아이를 키우는 24.1%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혼은 1972년 혼인 20쌍에 1쌍이던 데서 1993년 혼인 6쌍당 한 쌍으로 크게 늘었다. 이혼이 늘어난 만큼 재혼이 보편화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하기가 쉬워졌다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

다. 재이혼의 가능성이 높아 상담을 신청한 재혼남성의 40%, 여성의 21.5%가 재혼 3년 안에 파탄을 맞는다. 경제적 문제와 불신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재혼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산이 있는 남자 쪽에서는 재혼 조건으로 남편 사후 아내 몫으로 분배할 몫을 미리 정하는 '재혼계약'도 새로운 풍속으로 등장했다.

주체적인 재혼 선택이 중요해

한국가정 법률상담소가 40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재혼 주제 세미나에서 21일 조옥라(서강대, 인류학) 교수는 "이혼이 보편화된 시대에 재혼도 결혼 방식의 하나로 우리사회에서 정착해가는 도중에 있다"면서 이제 "동반자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부부관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재혼에 임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선 편집부장〉